

현대중공업, 박막 태양전지 메이저로

프랑스기업과 합작으로 CIGS 100MW 건설 ...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위협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대 박막형 태양전지 공장 건설함으로써 메이저 부상을 꿈꾸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0월8일 프랑스의 Saint-Gobain그룹 본사에서 민계식 회장과 드 살렌다 생고방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막형 태양전지 공장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월10일 발표했다.

현대중공업과 세계 최대 전자재 생산기업인 업체인 Saint-Gobain그룹이 50대50으로 2200억원을 투입해 2010년 12월 착공해 2012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내 외국인 투자지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능력은 CIGS(구리인듐갈륨비소) 박막형 태양전지 100MW로 생산에 필요한 고품질 유리는 Saint-Gobain의 자회사인 한글라스에서 공급한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까지 생산능력을 400MW까지 확대해 박막형 태양전지 세계 5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초기 단계인 국내 박막형 전지분야의 양산시기를 앞당기고 차세대 태양광 시장을 선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결정형과 박막형 태양전지를 모두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태양전지 시장은 고가의 폴리실리콘(Polysilicone)을 원료로 하는 결정형이 80%를 차지하지만, 유리기판을 주원료로 사용해 얇은 화합물을 입히는 박막형은 결정형보다 제조원가가 덜 들고 미관이 뛰어나 미래의 태양광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9년 세계 태양전지 생산량(9.6GW) 중 박막형 태양전지는 1.9GW로 20%를 차지했으며, 2010년 2.8GW, 2013년 5.0GW, 2015년 9.3GW, 2017년 17.7GW로 연평균 37% 성장해 시장점유율이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11>